

# 전남대병원, 상반기 350억 적자 '경영위기'... 재정지원 시급

지난해 12억 흑자서 적자 전환  
의정갈등에 전공의 이탈 늘고  
수술 대기일수 작년비 0.9일 ↑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전남대병원

의정 갈등 장기화 여파로 전남대병원이 올 상반기 350억 원대의 적자와 전공의 이탈, 수술 대기 일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와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는 전남국립대병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자본잠식과 병원의 고사위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손실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의 올 상반기 손실 규모는 359억원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전남대병원은 11억8600여 만원 흑

자였으나 올 상반기에는 적자로 돌아섰다. 전국에서 손익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또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중 서울대병원(1627억원), 경북대병원(612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경영 위기가 심각해 신속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사직 전공의들이 사직 처리 지연으로 취업·개원 등에 손해를 입었다며 병원 측에 2억대 손해배상 소

송을 낸 것과 관련해 수련의 생활을 하다가 사직한 전공의는 16명으로 파악됐고 청구액 기준 2억4000만원이며, 전국 국립대병원 10곳 중 소송 참여 사직 전공의 수와 청구액 모두 가장 많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11명(1억6500만원), 강원대·충남대병원 각 8명(각 1억2000만원), 부산대병원 6명(9000만원) 순이었다. 사직 전공의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병원은 경북대병원이 유일하다.

소송 결과에 따라선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각 수련병원의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의료대란 때문에 지방 의료 보루인 국립대병원이 누적 적자와 자본잠식 상태로 고사 위기다. 정부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긴급 지원을 해야 한다.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면

서 "병원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제2, 제3의 집단소송으로 이어져 병원 경영은 더욱 악화할 것이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병원의 관련 법적 분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에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남대병원 본원의 '수술 대기 일수' 평균 18.34일이라고 밝혔다. 2019년에는 수술까지 20일 가장 기다려야 했으나 지난해 17.5일로 줄었다가 올해(1~6월) 들어서는 수술 대기 일수가 18.4일로 다시 늘었다.

전남대병원 본원의 '입원 대기 일수' 평균은 10.7일 풀이었다. 입원 대기 일수는 2019년 10.1일에서 지난해 12.9일로 증가했다.

/광주=양수영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지역 이모저모



### 산청군 인민담당 공무원 힐링교육

산청군이 동의보감촌과 큰들문화예술센터에서 담당 공무원들의 스트레스를 해소를 위한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을 통한 재충전으로 민원 대응 역량 강화와 건강 증진 및 족욕 체험, 숲속 싱잉볼 명상, 꽃향차음, 컬러테라피 및 온열 체험과 동의보감 한의원의 공진단 만들기, 배꼽양땀 체험 등 스트레스 관리에 필요한 시간을 진행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대민 업무를 처리하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하다"며 "어려움이 많겠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적이고 친절한 자세로 보다 나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청(경남)=이도식 기자

## 오늘부터 나흘간 '2024 광주식품대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서

품군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인 '2024 광주식품대전'이 17일부터 2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광주식품대전은 참관객과 만남(B2C)을 비롯해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B2B)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제공하는 식품 산업전시회이다.

전남대학교 푸드테크학과, 나주푸드업사이클링센터, 리하베스트, 오성시스템, 오엠오 등 대학과 지역 기업이 참여한 푸드테크 특별관(8곳)에서는 지역푸드테크 산업을 소개한다.

특히 올해 광주식품대전은 그린 엔에그리테크, 주류관광페스타, 국제차 문화전시회와 함께 열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또 광주-대구 달빛동맹관,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향도음식특별관, 보해양조 & 완도금일수협 홍보관, 제주특별관 등 각 지역 대표 식품군을 만날 수 있다.

'푸드테크, 광주광역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올해 광주식품대전에서는 300개사가 참여해 450개 부스를 통해 지역 농·수산물, 푸드테크, 음료&디저트, 건강·기능식품, 식품산업 기기 등 다양한 식

/광주=양수영 기자



기보 김세현 대구청장(왼쪽)과 동양대학교 노경철 산학협력단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 기보, 경북 우수중소 추가지원 나서

동양대와 사업화 촉진 업무협약

기술보증기금이 동양대학교와 경북지역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가 지원에 나섰다.

기보는 동양대 산학협력단과 경북 영주시 소재 동양대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상호 유기

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경북지역의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동양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지역 우수기술기업에 실효성 있는 기술금융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동양대는 보유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기보에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

## 신안군,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농장 오픈

스마트 육묘장 등 3개소

망고를 재배하는 임대농장은 시설 규모 8,118㎡ 12연동 스마트 온실로 5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참여해 올해 첫 수확을 올리는 성과를 냈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예상되며 연간 약 5톤의 애플망고를 생산할 계획이다.

전남 신안군(군수 박우량)이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임대농장 개소식을 가지고 본격 청년농업인 육성에 나섰다.

이번에 문을 연 임대농장 3개소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4,278백만 원이 투입돼 환경 설정에 따라 시설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복합환경제어시스템과 전기난방 설비 및 재배작물과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실 등을 갖춘 내재해형 스마트 온실로 지어졌다.

기후 변화 대응 전략으로 아열대 작물인 커피, 바나나, 망고 재배와 아열대 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우량묘를 생산할 수 있는 스마트 육묘장 등 총 3개소가 문을 열었다.

커피와 바나나를 재배하는 임대농장은 5,494㎡ 규모로 4명의 청년농업인들이 연간 약 18톤의 바나나를 생산 판매해 1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신안(전남)=황세훈 기자 pinksea97@

## 부산시, 청년 고용우수기업 3곳 선정

부산시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청년 고용 증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지역 기업 3개사를 '2024년 청년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했다.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결 기업 100개사가 가운데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 청년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8월 공모를

통해 후보 기업 31개사 중 총 3단계 심사를 거쳐, ▲태광후지킨 ▲조광요턴 ▲바이네스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 고용우수기업에는 ▲인증서와 인증 환관 수여 ▲좋은일터강화지원금 4000만원 지원 ▲신규 취득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등의 체감도 높은 혜택이 제공된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 양산시 노인맞춤돌봄사업 대상 확대

양산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대상자가 2024년 8월부터 지역연금 수급자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까지 확대 추진된다. 기존 대상자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다.

관내 민간 수행기관 3개소에서 144명의 생활지원사가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지원, 지역자원연계, 특화사업을 직접 또는 연계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양산(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 부산 사상구 '1회용품 없는날' 캠페인

부산사상구는 환경보호와 자원 절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공직자가 먼저 실천해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청사내 '1회용품 없는(0:제로) 날'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매월 10일에 열리며 직원들뿐 아니라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점심 시간에 청사 1층 로비에서 진행했다. 1회용품 안 쓰기 동참 서명받기 등 캠페인을 통해 청사내 직원과 방문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적극적으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 뉴스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정재호 대사 "시진핑, 내년 APEC 참석 가능성...북중 미묘 징후" /사진 뉴시스  
▲인도 삼성전자 공장 파업 종료...한 달여 만에 합의

▲러시아 외무차관 "남한, 도발 멈춰라...北 침략당하면 군사원조"  
▲싱가포르행 인도여객기 이륙후 폭파 위협받아...전투기 출격 대응



▲위기의 '보잉', 최대 47조원 자금 조달 추진  
▲트럼프, 수소차에 거부감...“특별히 위험, 폭발시 끝장” /사진 뉴시스